

'안의 · 손흥록선생 선양 모임' 창립

조선왕조실록 목숨 걸고 지켜낸 정읍사람들 정신 선양 "민족사 보존의 의의 기리고 계승해야"

'조선왕조실록(이하 조선실록)'은 국보 제151호이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적인 기록물이다. 조선 제1대 왕 태조부터 제26대 왕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 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태조에서 명종에 이르는 조선 전기 200년을 담은 조선실록을 지켜 낸 곳이 바로 정읍이다.



'문화재지킴이날'인 22일 조선왕조실록을 목숨 걸고 지켜낸 정읍사람들, 특히 안의와 손흥록 선생을 선양하기 위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창립식을 가졌다.

'문화재지킴이날'인 22일 이를 기리고 조선실록을 목숨 걸고 지켜낸 정읍사람들, 특히 안의와 손흥록 선생을 선양하기 위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창립식을 가졌다. 서울 매현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안의·손흥록선생 선양 모임'을 구성하고 조선실록의 중요성과 이를 지켜 낸 의의와 지켜 낸 사람들의 정신 선양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

이 자리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모임의 고문을 맡은 박영일 전 쌍용양회 대표, 안의 문중 대표 안성형씨, 손흥록 문중 대표 손상호씨, 이학수 정읍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 함께 했다. 특히 이흥식 연세대 명예교수, 이정수 변호사, 오천진 수빈운수 대표 등 뜻을 같이하는 50여명도 동참했다.

주사고본도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했다. 당시 전주사고에는 조선실록 800여 권을 비롯 '고려사' 등 국가 주요 서적이 보관되어 있었고, 경기전에는 태조의 어진 등이 봉안되어 있었다. 이에 같은 해 6월 22일(당시 음력 기준) 정읍의 선비 안의(安義)와 손흥록(孫興祿)은 실록을 전란의 위기로부터 지키기 위해 마을사람 20여명과 함께 전주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실록을 정읍 내장산 용굴암으로 옮겼고, 이후 더 깊은 산속인 은적암, 비래암 등으로 옮겨가며 1년 여 동안 지키면서 매일의 상황을 '임계기사(壬癸記事, 전라북도 유형문화재)'로도 남겼다. 두 사람은 실록이 익산과 아산, 인천을 거쳐 강화부까지 옮겨져 때도 사재를 털어 동행하면서 실록을 지켜 냈다.

이들은 조선실록 이안(移安)과정 웹툰 제작 등을 통해 홍보에 주력하고 안의와 손흥록 선생 선양사업과 그들의 고향인 용동과 칠보 소재 학교 장학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평소 기록문화, 특히 조선실록에 관심이 높았던 박영일 고문은 "세계적인 기록유산을 간직하고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를 지켜 낸 분들에게 대해서 조명하고, 그들의 노고에 대해서 잊지 않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전쟁이 끝난 후 조선왕조는 전주사고본을 토대로 복본(復本)하여 춘추관, 마니산, 태백산, 묘향산, 오대산 사고 등 좀 더 안전한 깊은 산중에 보관해왔고, 한국전쟁 등의 우여곡절 끝에 조선실록은 1997년에 훈민정음과 함께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됐다.

이학수 시장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나라를 구하고 역사와 문화재를 지키고 안의·손흥록을 중심으로 한 많은 정읍인들의 의의와 용기 있는 행동은 우리 후손들이 기리고 이어가야 할 정신이다"고 강조했다. 또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조선왕조실록 이안 재연 연구를 시작으로 정읍 문화원을 통해 매년 이안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해 전주시와 인근 지자체 문화원과 협력해 전북, 나아가 국가 차원의 큰 행사로 키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1592년 4월 임진왜란 발발 20여 일 만에 성주사고, 충주사고, 춘추관 등에 보관돼 있던 조선실록은 불에 탔고, 유일하게 남은 전

한편 시는 최근 내장산 조선왕조실록 보존터로 가는 탐방로 내 여섯 곳에 손흥록과 안의를 비롯한 일행들이 어진과 실록을 이안하는 행렬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설치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주 관광 활성화 위한 대학생 아이디어

전주대 지역기반영역개발사업단, 영상 공모전 열어... 제출 영상 상영 홍보

전주대학교 지역기반영역개발사업단은 도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회 전주시 관광 활성화 영상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비해요 ESG'가 공동 수상했으며, 대상을 포함해 최우수상 1팀, 우수상 4개 팀에게는 총 70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됐다.

이에 따르면 18개 팀이 공모해 1차 심사 결과 10개 팀이 본선에 진출해 경쟁을 펼쳤다. 본선에 참가한 10개 팀은 지난 21일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호텔에서 전주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제작 의도 및 기대 효과 등을 발표했다. 최종 심사 결과 대상은 'Stay more with ESG'와 '거치소

지역기반영역개발사업 김효진 단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MZ 세대를 대표하는 대학생들의 전주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엿볼 수 있었다"며 "제출 영상은 베스트웨스턴플러스 전주호텔 및 여러 관련 기관의 홍보 공간에 상영돼 전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자료 기증식 개최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안형순)은 22일 원장실에서 2023년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자료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주는 소중한 흔적들이다. 특히 수장고에서 별도로 보관·관리되는 한편 온라인 서비스와 기증 자료집 발간을 통해 대중에게 소개되고, 국공립박물관의 여러 전시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기증된 자료는 고(故) 김병룡 나전장 보유자, 고(故) 김소희 판소리 보유자, 고(故) 성계옥 진주검무 보유자의 유품과 이흥구 학연화대합설무 보유자의 소장자료 등 총 592건이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보유단체, 유족들로부터 무형유산 관련 자료를 기증받아 관리와 활용 측면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이에 따르면 기증된 자료들은 오랜 기간 무형유산의 계승을 위해 헌신한 보유자의 삶과 함께 국가무형문화재 종목이 걸어온 길을 보

초·중학생 대상 문화예술교육·융합예술캠프 운영

고창문화관광재단, 창의적 문화영재 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 2년 연속 선정

고창문화관광재단(이사장 심덕섭)이 전북문화관광재단의 2023년 창의적 문화영재 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에 2년 연속으로 선정돼 도비 3100만원을 확보했다.

들에게 창의성과 잠재적 재능을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오는 7월 참여 학생 모집을 시작으로 8월부터 9월까지 멘토-멘티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9월에는 2박 3일간 예술융합캠프가 책마을 해리에서 운영된다.

창의적 문화영재 교육프로그램은 전라북도 내 예술 분야에 흥미와 재능, 꿈이 있는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멘토-멘티 교육과 융합 예술캠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생

고창문화관광재단은 '예술로 지구희생 프로젝트'를 주제로 멘토-멘티 교육프로그램에서는 글, 일러스트, 사진·영상 등 매체 배움 과정과 예술 조형을 만드는 비치코딩과 매체를 활용하는 기록 활동 등으로 구성된 융합예술 캠프를 운영한다. /고창=김영식 기자

심덕섭 이사장은 "예술가와 참여 학생들이 함께 즐기면서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10월 결과공유회(지구희생의 날)에는 참여 학생들의 가족과 관계자까지 초대해 결과물을 공유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 관광기업 Restart-up 프로젝트' 참여자 모집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지난 21일부터 2023 전북 관광기업 Restart-up 프로젝트'에 참여할 재창업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나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기업에는 맞춤형 교육과 사업화 지원금(최소 2,500만원~최대 3,000만원)이 차등 지급된다.

이는 우수한 재창업자를 발굴한 후 맞춤형 교육 및 사업화자금 지원 등을 통해 재도전의 성공률을 높이고자 기획했다.

참여 신청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7월 1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참여 대상자는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관광분야 재창업 3년 미만 사업, 타분야 3년 이상 사업 운영자 중 관광분야로 업종 전환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와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063-230-4213)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